

##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이 스트레스경험에 미치는 영향<sup>†</sup>

김 청 송<sup>‡</sup>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본 연구에서는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이 스트레스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즉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른 스트레스역치수준, 스트레스감내력,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불쾌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72명의 학생들이 실험에 참석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스트레스역치와 감내력에서는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이 각각 유의미한 주효과를 보였으나, 상호작용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스트레스불쾌감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만이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었고, 정동강도의 주효과 및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변인이 시사되었고, 본 연구의 제안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정동강도, 신경증적 경향성, 스트레스경험

정서반응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제안되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고 있다. 첫째는 공포나 기쁨과 같은 감정의 경험

<sup>†</sup> 본 연구는 “2004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교내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청송,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청소년학과, 전화: 031-249-9367, E-mail: drcsk@kyonggi.ac.kr

이다. 둘째는 무엇이 감정을 일으키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반응이다. 셋째는 내장반응이나 호르몬의 변화 등과 같은 생리적 반응이고, 넷째는 투쟁이나 도피 및 회피와 같은 행동적 반응이다. 그러므로 정서차원에는 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인지적 요인, 신체적 반응이나 생리적 반응의 수반, 그리고 행동반응과 같은 복합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서반응은 정서경험의 성질에 따라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는데 전자를 쾌의 정서로, 후자는 불쾌의 정서로 표현되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외적인 자극, 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적 정서는 물론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나쁨대로의 정서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느끼게 되는 정서적 경험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정서적 경험의 크기는 정동강도로 표현된다. 이는 정서의 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 특정 정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에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정서경험을 강하게 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비교적 약하게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동강도(affect intensit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이 부정적인 정서에 치중되어 왔다 (Margareta, Lundh, & Bertil, 2000).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동강도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와 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개인의 정서경험의 강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정동강도가 크다는 것은 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크게 경험한다는 것이다(Larsen, Diener, & Emmons, 1986).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정적 정

동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부정적 정동도 강하게 느낄 것이다.

정동강도는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의 특징으로 개인반응성의 전형적 강도로 정의되고 있다. 즉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때 어떤 사람은 정서를 미약하거나 온화하게 겪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정서를 매우 강력하게 경험하는데 이는 각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성이론의 모델에 따르면, 사람마다 최적의 각성수준(optimal arousal level)이 있는데 현재의 각성수준이 이보다 낮거나 높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조절활동이 시작된다고 한다. 각성수준이 낮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강한 물리적 자극을 추구하거나, 활동량을 늘리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강한 경험을 시도할 수 있다. 각성수준이 낮은 외향성자의 경우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정동강도는 높게 나타난다(Larsen & Diener, 1984, 1987; Schimmack & Diener, 1997)). 따라서 정서적 반응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각성수준이 낮을 때 이를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조절활동으로 볼 수 있다. Larsen 과 Diener 및 Emmons(1985)도 정동강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기피부반응(galvanic skin response; GSR)과 심장박동을 조사한 결과 정동강도와 정신생리적 지표간의 부정적인 상관을 얻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정동강도가 낮은 수준의 각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자극감쇄자(reducer)와 연결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 이론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연구된 것으로 자극감쇄자의 경우 각성수준이 낮으므로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며 강한 정서 경험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스트레스지각

은 각성수준과 대략 U-함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Haslam, 1972). Larsen과 Zarate(1991)는 피험자들에게 지루한 상황을 지속시킨 다음 강한 정서 유발 슬라이드를 보겠다고 질문하였다. 이때 자극감쇄자는 정서유발경험을 하겠다고 한 반면, 자극증폭자(augmenter)는 강한 정서유발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상관 연구에서 자극감쇄자일수록 정서추구경향성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주었다( $r=.57, p<0.01$ ). 즉, 자극감쇄자는 자신의 낮은 각성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한 정서경험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기저각성수준은 자극증폭자와 자극감쇄자의 감각자극과 정서적 반응성인 정동강도를 통해 최적각성수준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lascovich, Brennan, Tomaka, Kelsey, Hughes, Coad 및 Adlin(1992)은 정동강도와 심장각성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피험자들이 산수과제를 풀기 전에 기저 각성수준을 측정하였고, 과제수행 후에 유발된 각성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또 스스로 지각되는 각성수준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정동강도는 기저각성과 과제로 유발된 각성수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지각된 각성수준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정동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심장각성 정도를 과소평가하였다. Eichler와 Katkin, Blascovich 및 Kelsey(1987)도 자신의 심장각성 정도를 둔감하게 지각하는 사람이 강한 부적 정서를 보고한다는 결과를 얻어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리적 각성에 둔감하다는 사실을 지지하였다.

정동강도와 성격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정동강도는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동강도는 단순히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복합 차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McFatter, 1998). 그러나 이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합한 것은 정동강도의 약 30% 정도만을 설명할 수 있다(Larsen & Diener, 1987). 둘째,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부적 정동과 높은 상관이 있을 뿐 정적 정동과는 상관이 없지만 정동강도는 부적 정동과 정적 정동 모두 상관이 높기 때문이다(Schimmack & Diener, 1997). 특히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불안과 주의가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행동과 호소가 뚜렷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auver & Johnson, 1997). 따라서 정동강도는 외향성이나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다른 하나의 독립적 차원임을 제안할 수 있으나,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격차원과 관련되어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반응성, 특히 스트레스역치와 감내력은 낮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신경증적 경향성은 내적 자극에 대한 과잉-민감성 초점이 높고(Johnson, 2003),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커서(Gunthert & Armeli, 1999) 한 개인의 스트레스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스트레스자극에 대해서도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호소하고 보다 많은 문제행동을 보인다. 한 예로 신경증적 경향성이 클수록 만성 스트레스반응이 크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반응도 더 크게 나타난다

(Lauver & Johnson, 1997). Gunthert와 Armeli(1999)의 연구도 신경증적 경향성과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Wade와 그의 동료들(Wade, Dougherty, Hart, Rafii, & Price, 1992)도 신경증적 경향성이 개인의 스트레스행동에 대한 평정에서 의미 있는 예측치임을 입증하여 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신경증적 경향성은 우울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 개인의 건강위험행동을 잘 예측해준다는 점도 지지되고 있다(Cheng & Furnhan, 2002).

위의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정동강도와 관련하여 높은 정동강도를 보이는 사람은 각성수준이 낮거나 혹은 자신의 각성을 둔감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적 정서와 관련된 스트레스자극을 받았을 때 정동강도의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경험을 더 적게 느낄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 그리고 성격차원과 관련하여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내적 자극에 대한 과잉-민감성 초점 때문에 스트레스경험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이 하나의 독립적인 차원이라면 스트레스경험, 특히 부적 정서와 관련된 정서반응의 상대적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즉 정동강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역치가 높고, 스트레스감내력도 크며, 스트레스자극에 대한 주관적 불쾌감이 더 적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역치와 감내

력이 낮고, 스트레스자극에 대한 주관적 불쾌감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동강도는 신경증적 경향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는 물론 이를 지지할 수 없다는 선행연구결과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알아보기 위해 부적 정서와 관련되어 스트레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경기도에 소재한 K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19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동강도질문지와 성격차원검사를 실시하여 정동강도 수준과 신경증적 경향성 점수(총 26문항의 점수 중)에 따라 상위 30%와 하위 30%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네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즉 정동강도가 높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 17명, 정동강도가 높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은 집단 16명, 정동강도가 낮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 19명, 그리고 정동강도가 낮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은 집단 20명을 선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72명(여 48명, 남 24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05세( $\pm 2.11$ )였다.

### 측정도구

#### 1) 정동강도질문지

(1) AIM(Affect Intensity Measure; Larsen &

Diener, 1987) :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적 정동강도를 측정하는 25개 문항과 부정적 정동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를 이용한 Margareta와 Lundh 및 Bertil(2000)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가 매우 만족스러운 심리측정학적 특성(신뢰도, 내적타당도, 요인구조, 구성타당도 및 외적 타당도)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K대학교 대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2) EIS(Emotional Intensity Scale; Bachorowski & Braaten, 1994) : 정적 정동강도를 측정하는 14문항과 부정적 정동강도를 측정하는 16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 Bachorowski와 Braaten(1994)의 연구에서는 요인구조 및 타당도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심리측정학적 특성(반분신뢰도는 .848,  $\alpha$ 는 .841)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 연구에서 K대학교 대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alpha$ 는 .88이었다. 이 질문지는 AIM이 정서경험의 강도뿐만 아니라 빈도도 함께 측정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순수하게 정서의 강도만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 2) 성격차원검사

Eysenck와 이현수 공저(1985)의 한국판 “성격차원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7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 그리고 허위성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 점수를 사용하였다.

## 3) 스트레스측정도구

실험실의 스트레스자극으로는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열자극을 이용하였다. 피험자들은 50℃의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는 작은 플렉시 유리(25cm×50cm)앞에 앉게 된다. 물의 온도는 온도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0.2℃의 오차가 있음). 피험자들은 물에 집게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까지 집어넣는다. 그리고 열자극이 스트레스로 처음 느껴질 때 이를 언어로 보고하고(스트레스역치 측정),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보라고 한다(스트레스감내력 측정). 그리고 60초가 되면 손을 빼게 한다. 피험자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자신이 원하는 손을 먼저 집어넣고, 다음 손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두 손의 평균시간을 측정하였다. 스트레스자극으로 열자극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스트레스반응 응급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스트레스반응성의 강도에 따라 신체적 불편의 이상 유무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트레스자극에 대한 주관적 불쾌감은 시각유추척도를 이용하였다.

## 4) 시각유추검사(Visual Analogue Scale: VAS)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를 주관적 판단에 따라 10cm의 수평선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왼쪽 끝의 ‘전혀 불쾌하지 않음’에서부터 맨 오른쪽 끝의 ‘가장 극심한 불쾌감’이라고 표시된 수평선상에 자신이 느꼈던 주관적 불쾌감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절차**

피험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약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실험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자신이 원하는 손을 먼저 뜨거운 물에 집어넣도록 하였다. 그리고 5분 후에 두 번째 시행을 반복하였다. 실험절차상 신체적 위험을 고려하여 최고 노출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였으며, 이 절차가 모두 끝나면 피험자에게 시각유추검사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정동강도의 수준과 신경증적 경향성에 의해 구분된 네 집단의 스트레스역치, 스트레스감내력, 그리고 그에 대한 주관적 불쾌감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종속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정동강도 수준(고·저)×신경증적 경향성(고·저)의 이원요인설계를 이용하였으며, 정동강도의 수준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대적 기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라 구분된 집단간의 스트레스역치, 스트레스감내력,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불쾌감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2>는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른 스트레스역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정동강도가 스트레스역치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8.48, p<.01), 신경증적 경향성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으나(F=16.38, p<.001),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호작용

표1.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른 집단간 스트레스경험의 평균(표준편차)

측정치	집단	정동강도 저		정동강도 고		전체 (n=72)
		신경증저 (n=17)	신경증고 (n=16)	신경증저 (n=19)	신경증고 (n=20)	
스트레스역치		11.02(7.23)	6.03(2.55)	21.75(5.44)	9.45(6.23)	11.06( 5.36)
스트레스감내력		24.64(17.02)	14.55(5.67)	50.82(7.45)	22.34(17.32)	28.08(11.86)
주관적 불쾌감		22.51(25.00)	42.72(19.01)	23.11(11.78)	31.37(21.66)	29.92(33.31)

표2.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른 스트레스역치의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정동강도	321.72	1	321.72	8.48**
신경증적경향성	612.80	1	612.80	16.38**
정동강도×신경증적경향성	117.09	1	117.09	3.13
오차	1092.41	67	16.30	
전체	2144.02			

\*\* p < 0.1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른 스트레스 감내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정동강도의 주효과(F=12.37, p<.001) 및 신경증적 경향성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나(F=16.94, p<.001),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3>.

<표4>는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른 주관적 불쾌감을 알아본 결과, 신경증적 경향성은 주관적 불쾌감에 유의미한 주효과를 나타냈으나(F=4.56, p<.05), 정동강도 수준의 주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동강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부적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과 관련되어 스트레스경험이 적고, 그에 대한 주관적 불쾌감이 더 작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부적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과 관련되어 스트레스경험이 크고, 그에 대한 주관적 불쾌감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적 정서와 관련되어 정동강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역치가 높았으며 스트레스감내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정동강도가 높을 때 각성수준이 낮거나, 혹은 자신의 각성을 둔감하게 지각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또 낮은 각성수준을 가진 자극감쇄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극감쇄자인

###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이

표3.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른 스트레스감내력의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정동강도	2134.72	1	2134.72	12.37***
신경증적경향성	1597.02	1	1597.02	16.94***
정동강도×신경증적경향성	704.71	1	704.71	3.81
오차	5511.41	67	82.25	
전체	9947.86			

\*\*\* p < 0.001

표4.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른 스트레스불쾌감의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정동강도	212.72	1	212.72	0.50
신경증적경향성	1847.07	1	1847.07	4.56*
정동강도×신경증적경향성	342.41	1	342.41	0.79
오차	13814.56	67	206.18	
전체	16216.76			

\* p < 0.5

센세이션시이커(sensation-seeker)의 경우 강한 청각자극에 대한 식역이 높고 감내력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Zuckerman, 1994). 그러므로 작성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감내력이 크다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성격차원과 관련하여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른 스트레스역치와 감내력에 대한 반응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크고(Eysenck, 1994), 스트레스역치와 감내력이 낮다(Bond, 1981; Shiomi, 1978)는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불쾌감에 대한 보고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정동강도의 수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부적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과 관련되어서는 정동강도의 수준보다 신경증적 경향성의 효과가 더욱 강력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는 김청송(2003)의 신경증적 경향성과 스트레스민감성 범위간의 정적 상관을 발견한 연구결과, 즉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감내력에서 스트레스역치를 뺀 값의 폭이 좁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유해자극수용(nociception)의 처리과정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불안과 주의를 더 많이 보이고,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 반응성을 높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경증적 경향성은 불안과 부적 정서반응성을 포함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부적 반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불안과 주의를 더 많이 보이고 스트레스를 보다 빈번히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Lauver & Johnson, 1997). 신경증적 경향성은 우울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 개인의 건강위험행동을 잘 예측해준다는 점도 지지되고 있다(Cheng & Furnhan, 2002).

본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와 관련된 정동강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의 주효과 및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정동강도의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불쾌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물리적인 스트레스경험과 그것에 대한 심리적 평정간의 관계에 대한 시간차이, 주의분산력, 그리고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관여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동강도는 정적 정서는 물론 부적 정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정동강도에 따른 부적 정서의 유발자극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 우울 효과에 적용되는 신경증적 경향성의 효과처럼 정동강도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정동강도가 자극감쇄자 및 자극증폭자와 어떻게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과 자극감쇄자 및 자극증폭자의 정서자극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제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실에서 스트레스자극으로 열자극을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의 성질을 실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또 반영하고 있다면 신체부위에 따른 차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타당도 문제를 더욱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실험실에서 사용된 스트레스자극이 실생활의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점, 또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유도한 스트레스자

극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반응스타일을 대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험실에서의 스트레스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나가게 되면 스트레스 자극이 종결된다는 기대감의 반응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험실의 스트레스는 실생활의 스트레스보다 더 크고 심각할 때 최대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는 윤리적 문제가 뒤따르고, 실생활의 스트레스는 우울한 효과가 있지만 실험실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Peters & Schmidt, 1992).

끝으로 정동강도의 경우 정적 자극은 물론 부적 자극에도 스트레스역치 및 스트레스감내력이 크다는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었으나, 스트레스 자극 유발과 관련하여 추후연구에서는 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더욱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특히 정적 및 부적 정서를 유발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자극을 연구 선정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정서 반응은 크게 감정의 경험, 인지적 반응, 내장반응이나 호르몬의 변화 등과 같은 생리적 반응, 그리고 투쟁이나 도피 및 회피와 같은 행동적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경험의 성질과 인지적 반응만을 측정하였기 추후연구에서는 생리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참여자 수가 적었고 스트레스반응을 초로 측정하는데서 오는 표준편차의 값이 컸던 문제, 그리고 연구대상자들 중 상 하위 30%의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되었고 중간 40%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의 문제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청송 (2003). 성격특질차원이 청소년 스트레스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4, 21-36.
- Bachorowski, J., & Braaten, E. B. (1994). Emotional intensit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191 - 199
- Blascovich, J., Brennan, K., Tomaka, J., Kelsey, R., Hughes, P., Coad, M., & Adlin, R. (1992). Affect intensity and cardiac arou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64-174.
- Bond, M. R. (1981). The relation of stress to the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 Cornell Medical Index and Whiteley Index of Hypochondria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9, 671-678.
- Cheng, H., & Furnhan, A. (2002). Personality, peer relations, and self-confidence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oneliness, *Journal of Adolescence*, 25, 327-339.
- Eichler, S., Katkin, E., Blascovich, J., & Kelsey, R. (1987). Cardiodynamic factors in heartbeat detection and the experience of emotion. *Psychophysiology*, 24, 587.
- Eysenck, H. (1994). Cancer, personality and stress: prediction and prevention.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6, 167-215.
- Gunthert, K. C., & Armeli, S. (1999). The Role of Neuroticism in Daily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7, 1087-1101.
- Haslam, D. R. (1972). Experimental stress. In V. D. Nebylitsyn & J. A. Gray (Eds.),

- Biological Bases of Individual Behavior* (pp. 242-253). New York: Academic press.
- Johnson, M. (2003). The vulnerability status of neuroticism: over-reporting or genuine complai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877-888.
- Larsen, R.J., & Diener, E. (1984). Cognitive operation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 of emotional response intens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 Larsen, R.J.,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 Larsen, R.J., & Zarate, M.A. (1991). Extending reducer/augmenter theory into the emotion domain: The role of affect in regulating stimulation lev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713-723.
- Larsen, R.J., Diener, E., & Emmons, R.A. (1985). An evaluation of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 1-18.
- Larsen, R.J., Diener, E., & Emmons, R.A. (1986). Affect intensity and reactions to daily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803-814.
- Lauver, S.L., & Johnson, J.L. (1997). The role of neuroticism and social support in older adults with chronic stress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 165-167.
- McFatter, R. M. (1998). Emotional intensity: Some components and their relations to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747-758.
- Margareta, S. S., Lundh, L. G., & Bertil, T. (2000). Factor structure and validity of affect intensity measure in a Swedish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337-350.
- Peters, M. L., & Schmidt, A. J. M. (1992). Differences in pain perception and sensory discrimination between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 and health control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6*, 47-53.
- Schimmack, U. & Diener, E. (1997). Affect intensity: Separating intensity and frequency in repeatedly measure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313-1329.
- Shiomi, K. (1978). Relations of stress threshold and stress tolerance in cold water with scores on Maudsley Personality Inventory and Manifest Anxiety Scale. *Perceptual and Motor Skill, 47*, 1155-1158.
- Wade, J. B., Dougherty, L. M., Hart, R. P., Rafii, A., & Price, D. D. (1992).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on chronic pain, suffering, and pain behavior. *Pain, 51*, 67-73.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 2004년 11월 4일

수정원고 접수: 2004년 12월 1일

게재 결정: 2004년 12월 11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4, 923 - 933

---

## Effects of affect intensity and neuroticism on stress experiences

Chung-Song Kim  
Department of Youth Science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ffect intensity and neuroticism on stress experiences. Affect Intensity Measure(AIM), Emotional Intensity Scale(EIS),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 Thermal Pressure Stress, and Visual Analogue Scale(VAS) were administrated 72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significant main effects of affect intensity and neuroticism influenced on stress threshold and stress tolerance, but not interaction. With regard to stress displeasure report, only neuroticism showed the main effect but meaningful effect of affect intensity and their interaction were not found. Clinical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were also considere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Keywords* : *affect intensity, neuroticism, stress experiences*